

16/09/25(주) 주일예배 / 제목 : 천국은 어떤 곳인가? (계 4:1~11) p. 403

(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9)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관한 것’**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엄청난 환상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요한 앞에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을 온전히 심판할 수 없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버리시겠다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편지 끝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듯 계시록 2~3장은 각 교회의 실상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교회에 맞는 메시지, 즉 칭찬과 책망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완전히 장면이 바뀝니다. 2~3장이 교회가 직면한 지상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4~5장은 하늘 보좌에서 펼쳐지는 천상적 관점에서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4장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분이 계신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장차 사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의 실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천국의 실재를 믿지만 자기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게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미리 가볼 수는 없지만, 천국에 대한 증언을 들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에 대해 믿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천국의 실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의 모습과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한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의 내용은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묘사되고(1~3), 이십사 장로들이 나타나며(4~6), 보좌를 받들고 있는 네 생물의 활동(7~9)을 설명한 후 이십사 장로들의 찬양(10~11)으로 마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론 / 천국은 어떤 곳인가?

1.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1~3절)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있을 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신 이유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장차 될 일들은 4장부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장차 될 일의 내용 자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의 무대가 되는 하늘의 광경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던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성령님에 감동되었다는 말씀은 요한이 성령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세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흔히 보는 대기권의 공간을 말하고, 둘째 하늘은 그 너머에 있는 우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요한은 공간을 초월하여 순식간에 밧모 섬에서 셋째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님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고후12: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나 고후12:4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바울에게는 하늘의 광경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와는 달리 예수님이 요한에게는 그가 본 하늘의 광경을 기록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이 두 장에서 요한은 그가 본 하늘의 광경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고, 5장에서는 어린 양 곧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처음으로 본 것은 하늘에 있는 보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이 두 장에만 보좌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하늘의 중심이 바로 보좌이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말씀에는 ‘~같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보기는 보았는데 인간의 언어적 한계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보좌의 크기는 어떨고, 모양은 어떤지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보석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지개로 표현합니다. 벽옥은 수정과 같이 맑은 보석이고, 홍보석은 이름 그대로 붉은 빛을 내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무지개는 노아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자비를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1.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1~3절)

2. 보좌에 둘러 있는 24장로가 있는 곳입니다. (4~8절)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 있는 24장로들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주변에 앉아 있는 24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전체 성도들을 상징하는 대표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 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거룩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오직 24장로들만이 유일하게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습니다. 금 면류관은 이십사 장로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 당시의 교회는 비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상에 보이는 교회는 승리와 영광의 대상임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현재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미래의 모습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존귀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4장로들처럼 거룩함의 상징인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하늘 보좌 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이 있기까지 주님을 더욱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났다는 것은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모습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십시오. **(출20:18)**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시 77:18; 겔 1:13). 그래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말해주며, 하나님의 보좌가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지극히 존귀하고 높음을 보여줍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을 말합니다. 일곱 영은 1장 4절에 언급한 것처럼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등불은 단순히 빛을 제공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지상에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우리와 함께 있도록 부름 받은 존재)이지만 하늘에서는 ‘보좌 앞의 일곱 영’입니다. 이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계시며 또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암시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수정같이 깨끗하고 투명한 것이 한없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 성전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보좌 앞의 고요와 평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유리 바다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로 하여금 풍량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문제에 너무 빠져서 절망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을 돌이켜 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언급해야 할 존재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인데, 이들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들이 끊임없이 주시하며 통찰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쳐다보며 거룩한 보좌를 지킵니다.

그런데, 왜 네 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네 생물의 특성, 곧 사자의 힘, 송아지의 인내, 사람의 지성, 독수리의 신속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7절에 생물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같다’는 단어를 네 번 사용합니다. 이들은 각 분야의 최고로 간주되는 것들입니다. 사자는 야생동물의 왕이요, 독수리는 새들의 왕입니다. 또한 소는 가축 중에서 최고요, 사람은 피조물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하늘의 영들이면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할 존재로 부름 받았듯이 네 생물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네 생물들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밤낮 쉬지않고 거룩을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1.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1~3절) 2. 보좌에 둘러 있는 24장로가 있는 곳입니다. (4~8절)

3.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9~11절)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9~11절) “(9)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 우리 주 하나님이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라는 고백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황제에게 경배하라는 압력이 아무리 거세다고 할지라도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분에게만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줄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의 찬양은 바로 이러한 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함(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능력(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 그리고 창조주로서의 영원성(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입니다.

특이한 점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는다는 점입니다. 이 스물 네 명의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드린다는 말은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예배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행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십사 장로들이 자기들의 성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던져버린 이유는 전쟁터에 나간 왕들이 전쟁에서 지면 자기 왕관을 벗어가지고 이긴 왕의 앞에 보좌 앞에 던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 앞에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느 인생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참된 찬송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선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묵상하고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이십사 장로들과 네 생물들은 나름대로 최고임을 자부할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제 아무리 힘이 있고 영원한 권세를 가진 것 같아 보이는 로마 황제조차도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들려오는 찬양의 메시지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 보좌를 통하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천상에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우리도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에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부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천국에서 24장로와 네생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합니다.

요약정리 / 천국은 어떤 곳인가?

1.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1~3절)
2. 보좌에 둘러 있는 24장로가 있는 곳입니다. (4~8절)
3.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9~11절)